KR 상생뉴스

CEO 동정

## 오만대사 초청 면담

강영일 이사장은 5월 9일 모하메드 알하티 주한 오만대사를 초청해 오만 국영철도 건설 사업에 대해 양국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한국 철도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자리를 가졌다.

## 재난복구 종합훈련 시행

### - 신속한 초기대처 및 복구체계 구축 등 지휘 통제능력 배양 -

공단은 철도건설 현장에서 재난 발생 시 초기대처 능력 향상 및 신속한 복구체계 구축 능력 배양을 위한 '사고복구 지휘소(CPX, Command Post Exercise) 훈련'을 4월 30일 오전 10시에 전사적으로 시행했다.

이번 훈련에서는 ▲터널공사 현장의 터널붕락에 의한 상부도로 침하 단절, ▲교량공사 현장의 상부빔(거더) 가설시 거더 추락에 의한 인근 도로통행 전면 차단, ▲철도운행선 인접공사 현장의 가시설 전도로 인한 열차운행 중지, ▲철도역사 신축현장의 상부슬라브 거푸집 붕괴로 다수의 작업인부 및 장비 매몰, ▲전차선가설 현장의 크레인 전도로 인한 열차운행 중지 등 철도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5대 주요 사고 전 분야를 점검했다.

또한 공단은 '스마트폰 앱' 개발 활용으로 재난발생시 신속한 초기 대응능력을 향상토록 하고, 핸드북 매뉴얼 제작·배포 등 사고 유형에 따른 맞춤형 재난관리매뉴얼 재정비 등 재난관리시스템의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공단은 이번 훈련으로 재난사고 발생 시 본사 및 지역 재난대책 본부간 협업대응 체계의 신속한 구축은 물론, 재난복구 관계자들의 대응능력을 점검·보완하여 체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석종근 안전실장은 "앞으로도 재난복구 종합훈련을 주기적으로 시행 하여 공사관계자들이 체화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실정에 불합리한 재난관리 매뉴얼 지속 보완과 철도공사 및 의료기관 등 유관 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긴밀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철도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신입직원 공개채용

경영지원실(실장 이계환)은 정부의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대책'에 부응하여 2014년도 신입직원 ○○명을 공개채용할 계획이다.

신입직원은 채용형 인턴사원으로 채용하여 임용 후 5개월간 공단 인턴기간을 거쳐 약 70% 규모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며, 대졸사원은 사무·토목·건축·전기·통신직을, 고졸사원은 사무·토목직을 채용한다.

원서접수는 5월 8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며,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을 거쳐 2014년 6월 30일자로 임용할 예정이다.

지원자격은 대졸사원은 공인어학성적 TOEIC 750점, TOEFL IBT 82점, TEPS 597점, JPT 750점, 新 HSK 5급 195점 이상이어야 하며, 고졸사원은 최종 학력이 고졸(예정)인 자에 한하고 토목직은 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이어야 한다. 채용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단 채용 홈페이지(http://krnetwork.career.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영일 이사장은 "대한민국 미래성장 동력이자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핵심인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 구축에 함께할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지원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철도기술 및 운영통계 등 정보 공개 확대

### - 철도산업정보센터 웹진 '레일진' 서비스 개시 -

기획혁신본부는 국내 철도건설기술 및 운영 통계정보, 글로벌 네트워크 소식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4월 30일부터 웹진 '레일진'을 발간하여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철도산업정보센터(www.kric.or.kr) 웹진의 주요 콘텐츠는 최신 철도기술정보, 해외철도동향, 철도운영통계 등으로 매 분기별로 발간된다.

철도산업정보센터의 웹진 서비스는 온라인으로 무료로 제공하여 누구나 철도관련 콘텐츠를 종전보다 쉽고 편리하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신호/통신처 자체 청렴도 향상교육 및 의식개선 실행

신호/통신처는 올 1분기 공단 청렴모니터링 결과 부진소속으로 분석되어 청렴아카데미와 더불어 자체 향상교육을 시행하여 각성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청렴 취약 항목별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향상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타기관 지적 및 향상사례를 공유하는 등 과거의 관행이나 타성에 젖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은지를 점검하고 청렴/윤리 책임자는 간부급으로 지정해 세미나 및 회의에서 청렴교육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청렴의 습관적 생활화를 위해 '의식개선 실행안'을 마련하여 업무용 전화기에 부착함으로 윤리를 가시거리 내에 둬 뼈 속까지 청렴한 신호/통신처가 되자고 전 부서원이 다짐했다.

〈기술본부 서정민 기자〉

## 강릉시 도심구간 철도건설공사, 4월28일 입찰공고 후 6월 착공

### - 강릉도심 통과 철도노선 지하화로 도심단절 해소 효과 -

건설본부(본부장 김계웅)는 수도권과 강원권을 연결하는 동서축 철도망 구축과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을 위해, 원주~강릉 사업구간 중 강릉시 도심구간 철도 건설 공사를 4월28일 입찰공고 후 6월 착공한다고 밝혔다.

특히 강릉시 도심을 통과하는 철도노선은 지하화하고, 강릉역은 반지하 형태로 건설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도심단절과 주민생활권 침해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원주~강릉 철도의 종착역인 지금의 강릉역은 "대부분의 빙상 경기장(스피드, 쇼트트랙, 피겨, 컬링, 아이스하키)이 강릉역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 올림픽 관람객이 경기장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에 따라 지난 3월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지원위원회에서 결정했다.

본 사업이 완공되면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적인 개최 지원과 강릉시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영동지역으로 이동하는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어 관광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 진접선(당고개~진접) 복선전철 건설공사(턴키) 발주

### - 총 연장 14.8km, 공사비 6,538억원…2019년 완공 예정 -

건설본부(본부장 김계웅)는 서울지하철 4호선 당고개에서 남양주시 진접읍까지 연장하는 진접선(당고개~진접) 복선전철 1공구·4공구 건설공사(2개 공구)를 4월 30일 입찰공고했다.

진접선(당고개 진접) 복선전철 사업은 수도권 동북부지역에 철도망을 확충하여 국도47호선의 상습적인 교통정체 해소와 남양주시 진접읍융릉별내 택지지구의 수도권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시행되는 사업으로 작년 12월 기본계획이 고시되었다.

본부는 건설기간 단축을 위해 노반·건축·궤도분야를 통합하여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턴키)으로 추진하되, 공사규모 및 난이도를 고려해 1공구·4공구를 우선 발주하고 2공구·3공구는 6월에 순차 발주할 계획이다.

또, 진접선(당고개 진접) 복선전철 사업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업체 참여 시 분야별 평점에 최대 15%를 가산하고, ▲중소기업 참여 시 분야별 최대 2점을 가산 적용한다고 밝혔다.

반면, 입찰담합 발생 시 공단의 손실을 보전하고 담합으로 인한 기대이익을 환수함으로써 입찰담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손해배상예정액 제도 등을 적용할 계획이다.

※ 손해배상예정액 제도 : 입찰담합이 인정되는 경우에 입찰담합으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계약금액의 10%를 공단에 배상하는 제도(공정위에서 부과하는 입찰담합에 따른 과징금과는 별개임)

본부는 진접선 복선전철 건설공사를 금년 10월까지 전 공구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하여 2019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진접선이 완공되면 남양주시 진접읍에서 서울 상계동(당고개역)까지 14분이면 이동이 가능하여 출·퇴근시간 단축 등 국민들의 교통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공구별 발주계획

| 공 구 | 연 장 | 추정공사비 | 행정구역 | 비 고 |
|---|---|---|---|---|
| 1공구(턴키) | 4,427km | 1,969억원 | 서울 상계동, 남양주 별내면 | 4월말 발주 |
| 2공구(턴키) | 4,633km | 1,244억원 | 남양주 별내면, 남양주 진접읍 | 6월 발주(예정) |
| 3공구(턴키) | 3,186km | 1,556억원 | 남양주 진접읍, 남양주 오남읍 | 6월 발주(예정) |
| 4공구(턴키) | 2,539km | 1,769억원 | 남양주 오남읍, 남양주 진접읍 | 4월말 발주 |
| 계 | 14,785km | 6,538억원 | | |

## 설계품질 향상 및 규제완화 세미나 개최

### - 통신분야 신기술 시스템 적용방안 및 규제완화 통한 상생발전 도모 -

기술본부(본부장 김상태)는 4월 29일 본사 6층 회의실에서 한국철도공사, 한국정보통신 산업연구원,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통신분야 유관기관 및 협력사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계품질향상 및 규제완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미나에서는 정보통신분야 신기술을 철도시스템에 적용하여 철도 설계품질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토론하고, 업계와 공단의 수평적 발전과 공동의 이익을 위한 공단의 규제완화 노력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주요 토론 내용을 보면 통신업계에서는 ▲하천 하부 및 터널 내(TRcM공법) 전파음영지역 해소 시공방안, ▲내진을 고려한 정보통신분야 설계를 철도시스템에 적용하는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공단에서는 ▲그간의 설계VE 및 심사자료 공유를 통해 설계오류 재발방지를 당부하고, ▲해외철도사업에 정보통신분야의 역할강화, ▲수평적 상생발전과 철도산업발전 방향을 발표하고 토론시간을 가졌다.

특히, 본부는 정부의 개혁의지에 맞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철도분야 제도개선 현황과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의 정보통신 공사비 산정기준 정립 계획을 발표했으며, 협회/업계는 규제완화가 필요한 제도에 대한 요구사항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허상원 신호/통신처장은 "세미나 결과를 반영하여 정보통신분야 설계품질을 향상하고 부당한 제도가 있으면 전사적으로 개혁해 나갈 것이라고 전하며, 앞으로도 협력사 및 유관기관과의 수평적 발전과 투명한 공단을 만드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수서고속철도 안전을 위한 협의기구 본격 가동

### - 제1회 수서고속철도 안전운행협의회 개최 -

시설사업본부(본부장 박인서)는 수서고속철도의 안전하고 편리한 운행환경을 위해 지난 4월25일 본사 회의실에서 국토부, 철도공단, 수서고속철도(주)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수서고속철도 안전운행협의회를 개최했다.

수서고속철도 안전운행협의회는 공단과 수서고속철도 운영자로 새롭게 선정된 수서고속철도(주)가 상호 협력하여 수서고속철도의 성공적인 개통과 안정적인 운영을 준비하기 위해 지난 16일 양 기관 간 협약을 통해 구성된 협의기구이다.

본부는 협의회를 통해 고속철도 차량의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수서주박기지의 일부 검수설비를 추가로 확보하고, ▲고속철도 차량 객실 편의설비를 개선하는 한편, ▲수서역 등 신설역사 내 대합실과 화장실 등을 확충하기로 했다.

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협의회가 형식적인 행사에 그치지 않고 수서고속철도의 안전한 운행 등을 위한 실질적인 협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내실을 다져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성남~여주간 복선전철 초월교 중부고속도로 성공적 횡단

### - 중부 1·2 고속도로 최초 연속횡단 교량 설치 -

수도권본부(본부장 이수형)는 성남~여주 복선전철 초월교 (총연장 1,970m) 교량 공사 중 가장 어려운 구간인 중부제 1·2 고속도로 횡단구간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동 구간 교량은 교각간 거리를 100m의 최장대 경간으로 적용하여 중부1·2 고속도로를 중간교각 없이 연속횡단하여 자동차 시야를 충분히 확보하였으며, 케이블로 주탑과 교량상판을 연결하는 신공법을 적용하여 경제성과 효율성 향상은 물론, 고속도로 차량통제 없이 안전하게 시공 완료하였다.

특히, 교량 주탑은 높이가 27m에 경기도 광주시의 교목인 은행 나뭇잎을 형상화함으로써,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어 지역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부 관계자는 본 구간의 교량공사를 성공적으로 완료함으로써 2015년말 완공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갔으며, 본 사업이 개통되면 그 동안 철도 불모지였던 광주시와 이천·여주 지역에 철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경기 동남부지역의 교통편의 향상과 지역균형개발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게시판

## 주요뉴스('14.4.28~'14.5.9)

2014. 4. 28
- □ 원주 강릉 복선철도 건설 강릉 도심 2.6km 지하화 (동아 18A)
- □ '원주~강릉 고속철' 강릉 도심 구간 지하로 건설 (한국 14)
- □ 복선鐵 도심 지하화 방안 관심 (강원도민 12면)
- □ 강릉도심 지하화는 관철 … 동해까지 연장은 언되나? (강원 02)
- □ 원주~강릉 복선전철 공사 (강원 02)
- □ '올림픽 열차' 기적이 울린다 (강원 01)
- □ 2조4천억 조기 투입이 절실하다 (강원 02)
- □ 수서고속철도 안전운행협의회 (대전 09)
- □ 철도공단 1회 수서고속철도 안전운행협의회 (충청투데이 09)

2014. 04. 29
- □ 철도시설공단 복선전철 시내구간 공사 입찰 공고 (강원일보 22, 강원도민 13)
- □ "KTX논산역 설치… 국방부 적극 나서야" (충청투데이 18)
- □ 철도는 안전한가… 사용年限없애 20년 낡은 차량 '위험한질주' (한국경제 03)
- □ 터널·건설현장 등 국토부, 안전점검 (영남일보 07)
- □ 2019년 국제철도사장단 회의 서울 유치 (조선일보 12)
- □ "호남 KTX 이슈화 중단을" (전북일보 04)

2014. 4. 30
- □ "철도 노선변경 요구 왜 외면하나"(경인21)
- □ 중부내륙철도 이천~충주 여주 가남주민 "노선변경을"(경기10)
- □ 中 '6000km 철길' 연다(파이낸셜16)
- □ 성균관대 복합역사 개발 본격 추진(경기13)
- □ '100년만의 중흥기' 철도株 투자 가속(파이낸셜13)
- □ '지역 의무공동도급 축소' 건설업계 몰났다(중도7)

2014. 5. 1
- □ 6500억 규모 진접선 공사 철도시설公 순차 입찰공고(파이낸셜 19)
- □ 철도공단 재난복구훈련 시행(충청투데이 06)
- □ 4호선 진접선 건설 입찰 공고(서울 19)
- □ "이천~충주 간 철도건설땐 마을 고립… 노선 변경을"(서울 21)
- □ 복선전철 지하화 과제 산넘어 산(강원 22)

2014. 5. 3
- □ 道 하남선 별내선 전문인력 투입 (경기 04, 경인 02, 파이낸셜 27)
- □ 철도 삼각선 고립 월호평동 오늘 주민설명회 대책 주목 (강원도민 12)
- □ 고물鐵이 달린다 (동아 13)
- □ KTX 승무원 안전교육은 "책자 읽었다" 서명으로 끝내 (한겨레 05)
- □ "브레이크 부품 정비를 반복업무라며 외주… 말이 되나" (한겨레 04)
- □ 철도 운영은 코레일, 건설은 시설공단 선로 보수는 위탁… 통합 안전관리 안돼 (한겨레 05)
- □ 철도 안전감독관, 일본은 120명 한국은 5명 (조선 12)

2014. 5. 8
- □ 철도시설公 신입직원 채용(대전9)
- □ 20만㎡ '강북판 코엑스' 수색역세권 사업자 공모(한국경제27)
- □ "구정면~안인역 철도 추후 결정을"(강원도민12)
- □ 노후레일 뇌두고 엉뚱한 곳 교체…얼빠진 서울메트로(동아12)
- □ 고장난 스크린도어 신호기 외주업체에 맡겼던 게 '화근'(세계9)
- □ 2호선 제어시스템 오작동 6개월간 642건(중앙2)
- □ 동대구역 철도주변 안전점검(경북7)
- □ 직원 감축 코레일 80%가 안전 관련(매일경제1)
- □ 40살 새마을호, 역사 뒤안길로(세계10)

2014. 5. 9.
- □ 철도시설公 직무청렴계약 체결 (대전 16)
- □ 철도시설공단 "민의 부분 수용" 중부내륙鐵 둘러싼 대립 새국면 (경기 09)
- □ 원주 강릉 복선철 공사 차질 (강원도민 12)
- □ GTX 파주연장 시민들 팔 걷어 (경인 21)
- □ 경춘선 선로에 낙뢰… ITX 등 열차 운행 지연 (강원 05)
- □ 용인 이우현 "경전철 순환형 노선체계 구축" (인천 05)
- □ MB정부 '열차 25년 내구연한 규정' 삭제… 국회선 무사 통과 (경향 12)

경조사

- ■ 영남본부 건설/기술처 박용문 부장 빙모상 -발 인 : 2014년 5월 4일
- ■ 수도권본부 건설총괄처 이운무 부장 차장 모친상 -발 인 : 2014년 5월 8일
- ■ 수도권본부 건설총괄처 고재운 부장 조모상 -발 인 : 2014년 5월 8일
- ■ 전 감사실 오주경 사원 시부상 -발 인 : 2014년 5월 10일

KR상생뉴스(주간) 발행인 강 영 일 발행일 2014. 5. 12(369호) 편집인 신 철 수 기사문의 (042) 607-3085